

일본의 역사교육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전해왔는가: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생각하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일본의 역사교육은 역사학자의 의향을 반영한 교과서라는 차원과, 사회의 동향을 반영한 교육 현장이라는 차원으로 구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일본사 교과서는 정부의 검정제도 하에서 역사학자에 의해 집필되어 왔다. 전쟁경험 세대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강하게 반영해, 이 전쟁을 잘못이라고 파악하는 기조가 일찍부터 형성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만 전쟁에 관한 기술과 비교하면, 식민지 지배에 관한 기술은 부족하다. 이는 ‘국사’(내셔널 히스토리)라는 틀이 학교 교육에서의 일본사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의 일본사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 일본사는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과목으로 취급되거나 원시·고대부터 시작해 근현대는 훑는 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본 사회에서 일본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역사관이 뿌리 깊고, 또한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의 존재라 생각된다. 전쟁이나 식민지 문제를 포함한 일본근현대사는 논쟁적 영역으로 회피되기 쉽고, 평화 교육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2022 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역사 종합’ 과목은 일본사와 세계사의 근현대 부분을 통합해 모든 고교생이 배우는 필수과목으로,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변화시킬 것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교육 현장이 이 과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고, 여전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 SHIODE, Hiroyuki)

1997년 도쿄대 교양학부 학사. 1999년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 전공 석사. 2004년 도쿄대 종합문화연구과 지역문화연구 전공 박사과정 졸업. 박사(학술). 류큐대 법문학부 준교수, 동 교수, 교토대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를 거쳐, 현직은 교토대 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전문분야는 일본근현대사, 일본정치사, 동아시아국제관계사.

주요저작:

『岡倉天心と大川周明 「アジア」を考えた知識人たち』(오카쿠라 텐신과 오카와 슈메이: ‘아시아’를 생각한 지식인들) (山川出版社, 2011년). 『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월경자의 정치사: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일본인

이민과 식민) (名古屋大学出版会, 2015 년). 『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 (공론과 교제의
동아시아 근대)(東京大学出版会, 2016 년)